

강진에 울려 퍼지는 희망의 선율, ‘폭풍 속에서 있는 사람’

지역 대표 작곡가 이주엽의 삶의 고난 속 피어나는 3인의 음악 이야기

전라남도 음악창작의 요람, 강진군 전남음악창작소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작곡가 이주엽의 특별한 음악 프로젝트 『폭풍 속에서 있는 사람 - 작곡가 3인의 시선』이 오는 5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전남음악창작소 2층 공연장의 문을 활짝 연다.

전라남도와 전남문화재단의 후원 아래, 지역 작곡가 이주엽과 전남음악창작소가 손잡고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삶의 예상치 못한 위기와 그 속에서 길어 올리는 내면의 고요, 마침내 찾아오는 회복과 깊은 성찰의 순간들을 다채로운 음악 언어로 섬세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작곡가 각각의 독특한 시선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깊숙이 탐구하는 예술적 여정이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치유의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주엽 작곡가는 영광 예술의 전당에서 초연된 <관현악으로 빛은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국악 관현악 작곡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뮤지컬 <청춘일기 2>의 오케스트라 편곡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적 독창성을 구축해 온 실력 있는 음악가이다. 퓨전 국악팀 ‘별달래 크로’의 대표로서 혁신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온

이주엽 작곡가는, 전남음악창작소의 음반제작지원사업을 통해 발매한 앨범 『바람이 머무는 곳』에서 재즈와 국악의 매혹적인 융합을 선보이며 평단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앨범에 수록된 6곡은 지역의 정서와 예술적 깊이를 동시에 담아낸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연의 핵심 레퍼토리인 음악 『폭풍 속에서 있는 사람』은 이주엽 작곡가의 진솔한 자작곡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폭풍’이라는 강렬한 주제 아래 펼쳐지는 다섯 개의 음악 이야기 - ‘폭풍 속에서 있는 사람’, ‘Space’, ‘고요하다’, ‘즐겁다’, ‘Tomorrow’ - 는 삶의 거친 파도와 그 안에서 발견하는 섬세한 내면의 평화를 교차하며 깊은 공감을 자아낼 것이다.

특히 윤동주 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강수화 시인의 서정적인 시 낭송은 공연의 서막을 아름답게 열며, 보컬 박수연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 작곡가이자 섬세한 건반 연주자 장성훈, 리듬의 심장을 두드리는 드러머 유태경, 목직관 존재감을 드러내는 베이스리스트 김민수, 그리고 다채로운 색깔을 입히는 기타리스트 김한빈의 조화는 한층 더 풍성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의 가장 특별한 순간은 바

로 <이주엽, 박수연, 장성훈> 세 명의 작곡가가 각자의 음악적 언어로 ‘폭풍 속에서 선 자신’을 표현하는 ‘스페셜코너’이다. 이 시간을 통해 관객들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삶의 진솔한 이야기와 예술의 깊은 의미, 그리고 창작의 고뇌와 희열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주엽 작곡가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삶의 폭풍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번 공연의 씨앗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이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출연자와 관객 모두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살아 숨 쉬는 예술의 따뜻한 에너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진심을 담아 전했다.

전남음악창작소는 이주엽 작곡가와 같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끊임없이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음반제작지원사업을 비롯해 ▲지역 축제와 연계한 뮤지션 쇼케이스 개최, ▲미래의 음악가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전남 음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현준 전남음악창작소 팀장은 “이번 공연은 우리 지역의 뛰어난 창작 역량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이며,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예술 공연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음악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전남음악창작소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2025 전남 공예페스타’ 개최

한국천연염색박물관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공예주간을 맞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2025 전남 공예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남 공예페스타는 공예인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다양한 공예 체험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 가능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 축제다.

‘손끝에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 개막식은 24일 토요일 오후 2시 나주시 다시면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장에서 공예작가 14인이 나무, 섬유, 도자, 금속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실습형 공예 체험이 진행된다.

전남 공예인 29명이 참여하는 기획전시전 ‘연대, 공예&도구와 만남’도 열린다. 전시전은 ‘도구’를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공예의 철학적·기능적 의미를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인 ‘나는야 꼬마작가는 울화로 3회를 맞이했다. 에코백에 영산강 또는 십이지신(뱀)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6월 2일부터 7일까지 박물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재단 이사장이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예페스타는 단순한 전시와 체험을 넘어 세대 간 공예문화의 전승과 창의적 감성의 확산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 공예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5월 24일 오후 2시, 다양한 장르 음악으로 관람객과 만나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24일 오후 2시,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야외 공연장에서 ‘숲속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편백 치유의 숲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봄·가을에 ‘숲속의 작은 음악회’를 기획해 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통기타 가수 한승기를 비롯한 5개 팀이 출연해, 가요, 트로트,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은 수령

40~50년 된 편백나무와 전국 최대 규모(417ha)의 편백 숲을 자랑하는 전남의 대표 산림휴양시설이다.

이곳에는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노르딕 워킹 코스를 비롯해 8.4km의 숲길이 조성돼 있으며, 테라피센터 수치유실에서는 고흥만의 특징인 3색 탕(유자·편백·석류탕)을 운영하고 있어, 지친 일상의 피로를 풀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꽃양귀비와 편백의 상록이 어우러진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서 많은 분들이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심신을 재충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양시는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박주현)이 오는 5월 23일 오후 7시 30분과 24일 오후 4시, 양일간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4회 정기연주회 ‘아빠의 꿈’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된 합창음악극이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베베핀’, ‘상어가족’ 등 다수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안진성 연출가가 연출을 맡았으며, 바리톤 전태현이 아빠 역할로 출연해 공연의 완성도와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연은 평소 서먹했던 아빠와 딸이 엄마가 자리를 비운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아빠의 꿈’

5월 23·24일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서 이틀간 공연

며 서서히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합창단원들의 밝은 에너지와 아름다운 목소리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잔잔한 여운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사전예매 없이 전석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공연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이 진행된다. 공연 시간은 약 60분이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0년 7월 창단 이후 광양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계발하고 문화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명덕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리는 이번 공연이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



의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정책

보다 나은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꼭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